



김제시 아이들 생애 첫 독서활동 지원

김제시립도서관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스타트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세~7세(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김제=최창용 기자

김제시, 아이들 대상 북스타트 사업 운영

김제시 아이들을 위한 생애 첫 독서활동인 '2023년 북스타트 사업'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김제시립도서관(관장 소연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김제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2023년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조원영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대상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운영

책꾸러미배부-부모특강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꾸러미 사업은 0세 ~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또한, 북스타트 부모특강으

로 3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3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김제시,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진행

책꾸러미 배부사업 · 부모특강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 구성

김제시립도서관(관장 소연숙)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책꾸러미 사업은 0세 ~ 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이와 함께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이달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초청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제시립도서관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이달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김제 아이 첫 책 선물... '2023년 북스타트 사업' 운영

김제시립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생애 첫 독서활동 지원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7세(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여기에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3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 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유아

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3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아이 첫 책 선물 '2023년 북스타트 사업' 운영



책꾸러미 배부사업, 부모특강, 영유아 책놀이 등 프로그램 구성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세~7세(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책꾸러미

가 소진될 때까지다. <사진>

여기에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3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3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강승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세~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여기에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오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오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김정대 기자

전북금강일보

2023년 3월 2일 목요일

김제시립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진행키로

김제시립도서관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오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5·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26 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063-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김제 아이 첫 책 선물 '2023년 북스타트 사업' 운영

✎ 최필재 기자 | ☎ 승인 2023.02.28 11:41

-김제시 아이들을 위한 생애 첫 독서활동 지원



[투데이안]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사업과 부모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책꾸러미 사업은 0세~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방을 제공한다. 영유아 거주지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열람실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다.

여기에 북스타트 부모특강으로 3월 27일에 "엄마의 어휘력", "엄마가 되고 난, 이런 생각을 해"의 저자 표유진 작가를 모시고 '아이의 세상을 열어주는 부모의 언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월, 5월, 9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특강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3월 20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최필재 기자 bhaum2730@naver.com